

근현대 한국 통사(通史)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변화*

최 헤 린**

[초 록]

이 글은 통사가 갖는 근대 프로젝트적, 계몽적 성격에 주목하여 각 시대 주요 통사들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을 개항기, 일제시기, 해방·6·25전쟁기, 1950~60년대, 1970~80년대의 5개 시기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동국사략』(1906), 황의돈의 『신편 조선역사』(1923),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1933), 『조선봉건사회경제사』(1937), 이정원의 『조선역사독본』(1937), 이병도의 『조선사대관』(1948), 전석담의 『조선사교정』(1948), 손진태의 『국사대요』(1949), 이기백의 『국사신론』(1961), 이기백의 『한국사신론』(1967, 1976), 한국민중사연구회의 『한국민중사』(1986)를 검토했다. 일제시기는 통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통사(通史), 국사(國史), 피지배층 저항, 민란, 민중, 민중운동, 민중사, 민중사관, 신민족주의, 내재적 발전론, 역사재현
Korean Linear History Book, National History, Resistance of the People, Minran, Minjung, History of the Minjung, New Nationalism Theory, Internal Development Theory, Historical Re-Enactment

에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에 최초로 적극적 의미 부여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 시기, 근대 국가 모색 과정에서 나타난 자유주의적 서술과 사회주의적 서술은 해방 이후 출간된 통사들에서도 계승되고 변용되며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주요한 양대 서술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6·25 전쟁 이후 공고화된 남북 역사학계의 분단으로 사회경제사학이 남한에서 자취를 감추며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주의적 서술 또한 사라졌으나, 식민사관 극복으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적 문제의식 속에 사회경제사학의 요소들이 일정 부분 변용되어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분단 극복을 위한 ‘민중’ 중심 역사를 표방한 『한국민중사』에서 사회주의적 서술은 ‘민중’ 중심 역사 서술을 위해 재등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민중사』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은 한국사학사상 최대의 근대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1. 머리말

역사 서술 체계로서 통사(通史)의 성립은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과 관련이 깊다. 근대 주권국가가 성립하며 국민의 창출과 동원을 위한 핵심적 계몽수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자국사’였으며, 이러한 ‘자국사’는 일반적으로 현재의 국가와 국민이 머나먼 과거로부터 단선적으로 일관되게 관련되어왔음을 밝혀주는 통사 체계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통사의 서술은 일반적인 역사 서술에 비해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일정한 상(像)을 제시하는 계몽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통사서에서 전근대 피지배층의 저항에 대한 서술은 해당 서술이 쓰여진 시대와 역사가의 사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소재이다. 각 통사가 제시하는 역사상에 따라 전근대 피지배층의 저항은 같은 사건이

1) 도면회(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역사학의 세계: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도면회, 윤해동), 휴머니스트, p. 179.

라 할지라도 ‘난(亂)’, ‘봉기(蜂起)’, ‘운동(運動)’, ‘혁명(革命)’, ‘투쟁(鬪爭)’ 등 결이 다른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서술되었고, 사건의 원인 및 주체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술한 통사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이는 이들 통사가 제시한 ‘민족’ 또는 ‘국가’ 중심의 근대적 역사상 하에서 피지배층과 그들의 저항에 부여된 의미가 그만큼 크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근현대 주요 통사서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에 대한 서술을 시계열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해당 통사서에 투영된 역사가의 역사상과 결부시켜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역사상이 어떠한 배경에서 출현할 수 있었는지를 당대 대두한 근대 국가 수립과 관련된 시대적 과제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 상에서 ‘역사 발전 주체로서의 피지배층’과 ‘역사 발전 계기로서의 피지배층 저항’이라는 인식이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근대적 과제와 맞물려 주조, 변용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사 서술에서 나타난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의미 부여가 궁극적으로는 근대 프로젝트의 의도 하에 포섭되는 것이라고 보고 그 역사적 과정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2000년대 출현한 ‘새로운 민중사’²⁾적 입장과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또한 현재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주요 역사서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³⁾ 이 글은 향후 이루어질 관련 연구들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 ‘새로운 민중사’적 경향에 대해서는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 저(2014),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pp. 13-17 참고.

3) 그간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역사 서술 분석은 주로 국사교과서 서술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조선 후기 피지배층 저항 서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방기중(1986), 「조선후기 수취제도·민란연구의 현황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 39; 양정현(1992),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발전’관과 민란 서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등).

이를 위해 이 글은 각 시대에 편찬된 대표적인 통사서에 나타난 전근대 주요 피지배층 저항 사건 서술을 고찰하였다. 주로 고찰 대상이 된 사건은 신라 말기 농민반란, 고려시기 농민·천민반란, 조선 후기 농민반란, 동학농민운동이다. 또한 통사에 나타난 역사상을 살피기 위해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서술 뿐 아니라 각 통사의 서문이나 총론도 함께 고찰하였으며, 통사를 저술한 역사가의 사론이나 회고록도 참고하였다. 고찰 시기는 근대적 통사 체계가 성립한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하여 이른바 ‘민중사관’에 근거한 최초의 통사인 『한국민중사』가 편찬되는 1980년대까지로 하였다. 이는 1980년대 출현한 『한국민중사』에 이르러 한국사 통사 서술에서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근대적 의미 부여가 정점에 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며, 2000년대 이후 이러한 ‘민중사관’에 대한 비판적 움직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렴해낸 통사의 편찬은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2. 근대적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등장 — 개항기

근대적 역사 개념을 받아들이기 이전의 한국 역사학은 일반적으로 ‘사(史)’, 또는 ‘사기(史記)’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중국의 전통적 역사 개념의 특성을 가졌다. 전통적인 ‘사(史)’ 개념 속에서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지배층의 수신(修身)을 위한 학문으로 생각되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역사서들이 왕조 중심적이고 중화주의적이며 도덕적 포편을 중시하는 사관을 견지했다.

이러한 전근대 역사서들에서 피지배층의 저항은 왕조에 저항하는 ‘도적’, 또는 ‘적’들이 일으킨 ‘반란’으로서 부정적이고 수동적으로 서술되었다. 대표적인 전근대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피지배층의 저항사건들을 대부분 ‘적’, ‘도적’과 같은 부정적인 일반명사와 ‘반

(反), ‘반(叛)’, ‘기(起)’, ‘봉기(蜂起)’ 등의 동사를 사용하여 서술됨으로써 피지배층의 저항이 진압되어야 할 왕조에 대한 반란임이 명시되었다.

1876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개항은 한국에 근대가 본격적으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근대 주권국가의 수립이 과제로 제시되며 국민 창출을 위한 근대적인 역사 개념 역시 수용되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국사(國史)’ 기획은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1894년 8월에 공표된 학부아문 고시와 이듬해 3월에 공표된 일련의 법령에 의해 한국사는 독립 교과목으로 되어 외국사 및 경학과 분리되었고 이들보다 우선시되었다. 이에 따라 1895년부터 정부에서 편찬되기 시작한 소학교·중등학교용 역사교과서는 국민 계몽의 의도가 담긴 최초의 근대적 통사 기획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교과 동국역사』를 포함하여 이 시기 학부에서 편찬된 관찬(官撰) 역사 교과서들은 『동국통감』이나 『동사강목』과 같은 전근대 역사서의 기사들을 발췌 요약하는데 그쳤으며, 서술 방식 또한 전통적인 편년체 서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임금을 높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대사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왕조중심적인 사관을 견지했다.⁴⁾ 그 결과, 해당 사서들의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서술 역시 이를 진압해야 할 반란 사건으로 보는 전근대 역사서들의 서술을 그대로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1902년부터 사찬(私撰) 역사교과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며 이러한 대한제국 역사교과서들의 성격은 변화했다. 편찬 주체가 정부에서 개인으로 변화하며 다양한 해석과 서술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중 1906년 발간된 현재의 『동국사략』은 근대적인 서구 역사학의 편사체제인 신사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대 역사학 성립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⁵⁾ 비록 『동국사략』은 현재의 독립적인 저작이 아니라 일본

4) 현재(1899), 나애자 역, 『근대 역사 교과서 1 — 보통교과 동국역사』, 소명출판, pp. 47-49.

인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가 쓴 『조선사』(1892)와 『조선근세사』(1901)를 역술한 책이었지만, 역술의 형식을 통해서라도 신사체제를 역사서술에 도입한 것 자체가 근대 역사학에 대한 지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현채는 『동국사략』의 서문에서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가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고 또한 각 부문의 종류를 나누어 사람들이 한 번 읽으면 명료하였다”고 역술의 계기를 밝히며 근대적 역사서술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전통적인 ‘사(史)’, ‘사기(史記)’에 대해서는 자국사를 무시하고 소홀히 함으로써 국망(國亡)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판했다.

이러한 현채의 인식은 서구식 근대 국가 수립에 대한 지향과 이를 앞서 달성한 일본에 대한 동경, 그리고 완고함으로 인해 한때는 문명적으로 앞서있던 일본에게조차 뒤지게 된 현실 비판에 기반하고 있었다. 이에 그는 근대적 역사서인 『동국사략』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견문을 넓히고 정세를 인지하게 하여 옛날의 문화를 회복하고 엄연한 독립국의 면모를 갖추기를 바랐다.⁶⁾

현채의 이러한 의도 속에서 『동국사략』의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대한 서술은 이전 역사서의 서술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피지배층의 저항을 단순히 진압되어야 할 반란으로 보던 이전의 서술에서 벗어나 저항이 일어나게 된 필연성과 저항의 원인인 조선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는 조선 후기에 발생한 흥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서술에서 두드러졌다. 그는 흥경래를 ‘도둑’, ‘적’이라는 왕조사관적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하기는 하였으나, 흥경래의 난이 “다

5) 도면회(2009), pp. 177-213; 이신철(2013), 「동국사략의 당대사 역술과 서술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역사학의 국민만들기」,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 선인, pp. 423-460.

6) 현채(1906), 임이랑 역, 『근대 역사 교과서 2 — 중등교과 동국사략』, 소명출판, pp. 47-52.

외척봉당의 폐해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보아 흥경래 난의 원인이 된 세도정치하의 부패상을 강조하였다.⁷⁾ 동학농민운동 또한 “국정이 나날이 그릇되고 탐관오리가 전횡하며 외세가 또 침입하였으므로 이에 거사코자 하였다”라고 서술하여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된 지방관의 부패가 강조되었다.⁸⁾

이러한 현재의 서술은 전근대적인 왕조사관적 인식에서 탈피하여 근대 문명 국가에 대한 지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지배층을 여전히 ‘도둑’, ‘적’과 같은 부정적 용어로 서술하고, 저항 사건 자체의 의미에 주목하기 보다는 조선 후기 부패상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저항 사건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라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또한 문명국으로 상정된 일본에 대한 동경으로 인해 하야시 다이스케의 『조선사』에 투영된 초기적 형태의 식민사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폐정 혁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하야시 다이스케의 서술을 그대로 역술한 것이 대표적인 예였다.⁹⁾

현재의 『동국사략』은 최초의 신사체 통사로서 독서 환경이 열악하던 당시 상황에도 불구하고 3판을 인쇄하며 인기를 얻었다. 이를 통해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특히 조선 후기 피지배층 저항의 원인을 조선 정치의 부패와 후진성에서 찾는 인식이 점차 대중화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후 출현한 통사 서술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7) 현재(1906), pp. 364-365.

8) 현재(1906), p. 387.

9) “무릇 동학당이 일어난 것은 폐정의 연고였으므로 만일 그 폐정을 혁신하지 아니하면 화란이 끊이지 않을 터였다. 이에 일본이 청을 권하여 조선의 내정을 개혁하고자 하니 청이 듣지 않았다.”(현재(1906), p. 387).

3. 자유주의적 혁명 또는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으로서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 출현 — 일제시기

3.1. 자유주의적 혁명으로서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

갑오개혁 이후, 활발히 진행된 역사교과서류의 통사 발간은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 이후, 일제 주도의 교과서통제정책이 실시되며 둔화되었다. 통제 정책의 실시 결과, 1911년에 이르면 간략한 초등용 교과서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역사교과서들은 불인가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통사의 발간이 다시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형식적인 차원이거나 ‘열린 공간’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 그 배경이었다.¹⁰⁾

당시 편찬된 통사들 중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대한 서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통사는 1923년에 편찬된 황의돈의 『신편 조선역사』이다. 특히 이 통사는 출간 직후 큰 인기를 끌어 1929년까지 4판이 발행되며 한국사의 대중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¹¹⁾ 한국 문화의 유구함과 우월성을 강조하며 민족과 문화를 강조한¹²⁾ 이 통사에서 황의돈은 흥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을 서술하며 ‘혁명란(革命亂)’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를 소재목에 배치하는 등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¹³⁾ 『신편 조선역사』에서 두 사건 외에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세조의 혁명’, ‘중종의 혁명’ 등 왕위 교체를 뜻하는

10) 박종린(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적 대중화 —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p. 250.

11) 박종린(2014), pp. 254-255.

12) 황의돈(1923), 『신편조선역사』, pp. 1-2.

13) 흥경래의 난은 ‘제4편 근세사 제 27장 국정의 부패와 흥경래의 혁명란’에서, 동학농민운동은 ‘제5편 최근세사 제 6장 국정의 부패와 동학당의 혁명란’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역성혁명’ 사건들로 이는 곧 황의돈이 흥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을 왕위 교체에 버금가는 주요한 사건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사 체제에서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주요한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시도였다.

한편 『신편 조선역사』가 흥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에 부여한 ‘혁명’의 의미가 프랑스 혁명이나 청교도 혁명과 같은 서구의 자유주의적 혁명의 의미였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서술에서 잘 드러나는데 황의돈은 동학의 교리가 자유, 평등의 주의였기 때문에 교세를 크게 확장하였다고 보았으며,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 또한 관(官)의 학정(虐政)에 저항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당이 대변한 것으로 보았다.¹⁴⁾ 이러한 황의돈의 인식은 1922년에 그가 쓴 사론 「민중적 규호(叫號)의 제(第)1성(聲)인 갑오(甲午)의 혁신운동」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사론에서 황의돈은 동학농민운동을 ‘혁명’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전민중의 자유적 권리, 평등적 행복을 요구키 위하여 또는 그를 대표하여 규호하고 분투한” “민중적 혁신운동”으로 보았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을 프랑스 혁명 등 서구의 자유주의적 혁명들과 함께 서술하여 이를 세계사적인 자유주의 혁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관점을 드러냈다. 전봉준, 최제우를 민중의 뜻을 대변한 선각자로서 예수, 루소와 같은 서구의 혁명가들과 비교하여 서술한 것 역시 특징적이다.¹⁵⁾

『신편 조선역사』에 이와 같은 피지배층 저항 사건 서술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에 영향을 미친 ‘개조론’과 1919년 발생한 3·1운동을 들 수 있다. ‘개조론’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후 세계적으로 등장한 신사조(新思潮)로 전쟁의 참화를 반성하고

14) 황의돈(1923), pp. 156-157.

15) 황의돈(1922), 「民衆의 叫號의 第1聲인 甲午의 革新運動」, 『海園文稿 下卷』, 문원사, pp. 80-105.

자본주의 문명의 폐해를 개선·변혁하고자 한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개조론’은 3·1운동 전후 주로 일본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며 당대 지식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¹⁶⁾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춘 본래 성격과는 달리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는 반봉건 근대화의 사조로 수용되기도 하였다.¹⁷⁾ “혁신이 아니면 개조가 없으리라, 진화가 없으리라”라고 평하며¹⁸⁾ 동학농민운동을 자유, 평등 사상으로서의 ‘개조’를 이끈 혁신운동으로 본¹⁹⁾ 황의돈 또한 ‘개조론’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향력이 『신편 조선역사』의 서술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 무렵 발생한 3·1운동은 피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다수의 조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대규모 저항운동이었다는 점에서 황의돈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은식이 3·1운동 직후인 1920년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우리나라의 ‘평민(平民)혁명’으로 서술하며 높이 평가한 것이나,²⁰⁾ 신채호가 1923년 집필한 「조선혁명선언」에서 피지배층인 ‘민중’이 일본에 대한 ‘혁명’을 수행할 주체라고 주장한 것²¹⁾은 3·1운동이 피지배층에 대한 당대 역사가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신편 조선역사』의 서술과 같이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사회개조적인 자유주의적 혁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은 당시 조선인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공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16) 이에 대해서는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pp. 37-54 참고.

17)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pp. 15-28.

18) 황의돈(1922) p. 80.

19) 황의돈(1922), pp. 104-105.

20) 박은식(1920), 김도형 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p. 46.

21) 신채호(1923), 「조선혁명선언」, 『단체 신채호 전집 下卷』(단체 신채호 선생 기념사업회 편), pp. 35-46.

황의돈과 동시대에 활동한 역사가인 문일평, 안확의 서술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일평은 1923년 발표한 사론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에서 고려시대의 노비반란과 홍경래의 난,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이라 명명하고 이들 사건이 프랑스혁명이나 영국혁명에 비견되는 “계급적 특권” 타파를 위한 운동이었다고 보았다.²²⁾ 그 역시 이러한 피지배층 저항 사건이 계급 타파를 위한 근본적인 개조를 위한 시도였다고 본 점이 인상적이다.²³⁾ ‘개조론’적 입장에서 조선인의 민족성을 인도, 정의라는 근대적 가치에서 찾은 안확 또한²⁴⁾ 1923년 발표한 『조선문명사』에서 ‘노예의 운동’을 한 절로 설정하여 이를 귀족의 압박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평가하며 자세히 서술했으며,²⁵⁾ 홍경래의 난을 “민권을 표방한 혁명운동”이라 평하였다.²⁶⁾ 『신편 조선역사』의 서술은 이러한 당대 역사가들의 인식이 수렴되어 통사에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신편 조선역사』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은 통사 서술상 최초로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혁명’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홍경래나 전봉준과 같은 저항 지도자의 영웅적 면모가 지나치게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사건의 근본적 주체로서 피지배층인 ‘민중’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한편 『신편 조선역사』의 서술은 ‘개조론’의 영향으로 피지배층 저항 사건에 실제 사건 당시에는 표방된 바 없던 ‘자유’, ‘평등’, ‘정의’ 등의 근대적 가치가 부여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역사가와 그 시대가 추구한 근대적 사회상이 피지배층 저항 사건

22) 문일평(1923), 「朝鮮 過去의 革命運動」, 『호암문일평 전집 — 新聞 補遺篇』, 민속원, pp. 196-201.

23) 문일평(1923), p. 201; 문일평의 개조론적 인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으로는 류시현(2010), 「1920~30년대 문일평의 민족사와 문화사의 서술」, 『민족문화연구』 52, pp. 42-43 참고.

24) 류시현(2010), p. 42.

25) 안확(1923), 『조선문명사』, 회동서관, pp. 180-182.

26) 안확(1923), p. 325.

의 역사 재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상에서 피지배층은 지배층의 계급차별적 정치에 신음하며 자유, 평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를 희구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3.2.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으로서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

한국사 이해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도입한 이른바 사회경제사학의 성립은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일제 시기,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저작들은 엄격한 검열제도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출간되지 못하고 일본에서 출간되어 『신편 조선역사』와 같은 통사들보다는 대중성 면에서 다소 한계를 가졌지만, 사회주의적 계급투쟁이라는 역사적 법칙의 틀 내에서 피지배층 저항을 이해하는 새로운 이해 방식을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사학의 효시격으로 알려진 백남운의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의 서술은 사회경제사학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 방식을 잘 보여준다. 원시시대~통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를 다룬 이 연구들에서 백남운은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이해에 사회구성체론과 계급투쟁론이라는 유물사관의 이론을 도입하였다. 그는 한국사를 세계사적이고 보편적인 역사 발전 법칙에 따라 파악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물질적인 생산력 및 생산방식을 기초로 하는 사회구성체론을 제시했다.²⁷⁾ 이에 따라 그는 한국사가 원시공산제 사회-노예제사회(삼한~삼국시기)-아시아적 봉건제사회(삼국말기~조선시기)-이식 자본주의사회(일제시기) 등 크게 네 단계의 사회구성을 거치며 발전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각 사회구성 이행의 계기를 피지배층의 저항인 ‘계급투쟁’에서 찾음으로써 피지배층 저항에 역사 발전의 촉매로서의 의미를 부여

27) 백남운(1937), 하일식 역,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이론과 실천 p. 24.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사회경제사』는 신라말기 나타난 ‘도적봉기’가 사회적 모순 축적에 의해 촉발된 ‘농민일규(農民一揆)’였으며, 비록 궁예·견훤 등 투기적 영웅들에 의해 군사공작의 일환으로 이용되었으나 고려 봉건 사회의 성립의 원군(援軍)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²⁸⁾ 또한 그는 『조선 봉건사회경제사』에서 ‘농민일규’라는 독립된 절을 따로 설정하여 고려 시기의 농민반란을 연대기별로 상세히 서술하였는데 이 또한 계급투쟁론에 따라 중세적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모순이 농민의 반란으로 표출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백남운의 역사서에 나타나는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그 상세성과 구조적 이해, 발전적 의미부여 등의 측면에서 이전까지의 피지배층 저항 관련 역사 서술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백남운이 제시한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통사 서술에 상당 부분 계승되었다. 1937년 발간된 이청원의 『조선역사독본』은 사회경제사학의 관점에서 쓰여진 최초의 한국사 통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조선역사독본』 역시 유물사관적 관점에 따라 한국사를 원시사회-노예사회(삼국~고려시기)-봉건사회(조선시기)-이식 자본주의 사회(개항기~일제시기)라는 사회구성체의 변천으로 파악하였으며, 피지배층 저항을 다음 역사 발전 단계 이행의 촉매인 계급투쟁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조선역사독본』은 흥경래의 난이나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일부 저항 사건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통사들과는 달리 각 시대의 피지배층 저항들을 상세하고 적극적으로 다루며 신라 말기 농민봉기 - 고려 중기 농민봉기 - 조선 후기 민란 - 동학농민운동에 이르는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의 통사를 제시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조선역사독본』의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백남운

28) 백남운(1937), p. 202.

의 서술과 동일한 입장에서 쓰여졌으나 기본적으로 대중 계몽적 성격을 갖는 통사의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학자라기보다는 사회주의 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이 짙었던 이청원 개인의 성격으로 인해²⁹⁾ 백남운의 저작보다 훨씬 계몽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띠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백남운이 자신의 연구에서 과학적 역사를 표방하며 사회구성체론의 적용을 전면에 내세운 것에 비해 이청원은 『조선역사독본』의 서문에서 과학적 역사란 “조선의 일반적인 형태의 경제대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역사의 발전법칙에 비추어보아 역사의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역사상의 경제대립, 즉, 계급투쟁을 보다 중시했다.³⁰⁾ 이에 따라 ‘난(亂)’, ‘반란(反亂)’ 등 사료에 나타난 당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평가 또한 최대한 절제한 백남운과는 달리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에 ‘투쟁’, ‘운동’, ‘전쟁’, ‘혁명’ 등 실천성이 강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조선역사독본』의 서술은 마지막 장인 ‘현 단계의 조선의 사회와 경제’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자본주의가 이식되었으나 봉건사회의 ‘이데아’인 ‘양반’이 여전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조선의 현실이라 평가하고 ‘양반사회’의 극복과 ‘평민사회’ 건설을 현 단계의 과제로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³¹⁾

백남운과 이청원의 저작에 나타난 유물사관적 피지배층 저항 서술은 피지배층과 그들의 저항을 역사 발전 법칙의 중심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한국사에서 피지배층 저항이 갖는 의미를 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서술은 역사 발전 법칙이라는 일괄적

29) 이청원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는 박형진(2012),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과학적 조선학 연구 — 이청원의 식민지기 학술활동과 논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30) 이청원(1937), 『朝鮮歷史讀本』, 白揚社, p. 2.

31) 이청원(1937), pp. 330-334.

인 틀로 다양한 피지배층 저항들을 포섭해 넘으로써 각 저항 사건들이 갖는 다양한 양상과 맥락들을 사장(死藏)시키기도 했다. 저항의 주체 역시 ‘농민’이라는 일괄적인 계급으로 환원되어 설명되었다. 이러한 면모는 비록 지도자 중심이긴 했으나, 각 저항 사건들의 개성을 어느 정도 드러냈던 이전의 피지배층 저항 역사 서술들보다도 후퇴한 것이었다.³²⁾ 더불어 사회경제사학의 서술은 피지배층에게 역사 발전 주체라는 의미와 함께 근대 사회 건설을 위한 현실적인 의무 또한 부과하였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사학의 역사상에서 피지배층은 역사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사회 발전을 위한 계급투쟁을 수행해나가야 할 의무를 짊어진 존재로 그려졌다. 『조선역사독본』이 갖는 강한 실천성과 계몽성 또한 이러한 저항 주체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박은식의 서술이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의 근대 혁명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교주의 칼춤, 기도, 성미법(誠米法) 등과 같은 동학 교인들의 삶 또한 서술함으로써 피지배층의 일상 또한 드러낸다(박은식(1920), pp. 44-45). 자유, 평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를 보다 중시한 황의돈, 문일평의 서술에서 이러한 피지배층의 전근대적 일상들은 대거 탈락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술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 저항 사건들의 발단과 경과를 비교적 상세히 드러낸다(황의돈(1922), pp.89-104; 문일평(1923), pp.196-201; 문일평(1939), 「史上의 奇人」, 『호암문일평 전집 — 政治外交篇』, pp. 371-413). 그러나 사회구성체와 계급투쟁이라는 틀 안에서 피지배층 저항을 해석한 사회경제사학의 서술은 다양한 저항 사건들을 경제적 모순으로 인해 발생한 ‘농민의 반란’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을 탈락시킨다. 이는 백담운이나 이청원이 피지배층 저항을 서술하며 ‘만적의 난’, ‘홍경래의 난’과 같은 지도자 중심의 당대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농민반란’이나 ‘농민일규’로 지칭한 데에서 잘 드러난다.

4. 탈식민·분단 극복을 위한 피지배층 저항 서사의 활용

4.1. 일제시기 피지배층 저항 서술 경향의 계승과 변용

1945년 8월 해방에서 1950년 6월 6·25전쟁에 이르는 시기는 한국 통사 발간의 또 다른 획기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독립된 민족국가의 수립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함에 따라 민족사 확립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며 해방 직후만 해도 200여 종 가량의 역사 관련 저서와 교과서 및 참고서가 출판되었다. 이 중 1948년 출판된 이병도의 『조선사대관』과 전석담의 『조선사교정』, 1949년 출판된 손진태의 『국사대요』는 이른바 실증주의 사관, 사회경제주의 사관, 신민족주의 사관이라는 상이한 역사관에 의거해 피지배층 저항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분석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들 통사의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대체로 일제시기 출현한 자유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서술 경향을 계승하는 가운데, 『국사대요』의 서술은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양자의 서술을 결합한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여 주목된다.

먼저 “역사는 과학”이라는 천명으로 시작되는 이병도의 『조선사대관』은³³⁾ 진단학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실증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통사로 평가된다. 이 책에서 이병도는 사료에 기반하여 고려시대 노비반란, 홍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농민운동을 각각 ‘노예의 난’, ‘홍경래란’, ‘진주민란’, ‘동학란’이라는 당대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했다. 객관적 사실의 고증 자체를 중시한 실증주의 사학의 특성상 이들 사건에 대한 이병도의 평가는 그리 많지 않았으나 대체로 이를 자유, 평등 등의 근대적 가치를 추구한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고려시대 노비 반란을 “노예 자신의 해방운동”,³⁴⁾ 홍경래의 난을 “외척의 세

33) 이병도(1948), 『조선사대관』, 동지사, p. 1.

34) 이병도(1948), 위의 책, p. 218.

도 아래 병 들어가는 정치 밑에 고민하는 전민중의 분개를 대표한 것”,³⁵⁾ 동학농민운동을 “농민·노예 대 귀족전쟁 — 즉 특권계급에 대한 피착취민중의 무력적인 일종의 사회혁명운동”³⁶⁾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전석담의 『조선사교정』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일제시기 사회경제사학의 관점을 그대로 계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체론에 기반하여 한국사의 사회구성을 원시사회-봉건사회(삼국시기~조선)-반봉건사회(개항기~현재)로 파악하고, 피지배층 저항을 이러한 사회구성체의 발전 계기인 계급투쟁으로 보았다. 하지만 『조선사교정』은 새로운 독립 주권 국가 수립을 과제로 한 해방공간기에 출간되는 과정에서 백남운이나 이청원의 저작들보다도 훨씬 더 실천적이고 계몽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전석담은 『조선사교정』의 서문 ‘조선사 연구의 의의’에서 “역사과학은 철두철미 실천적 의의를 띤 것이며 따라서 실천을 떠난 역사과학은 학문이 아니라 고담한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역사학의 본질이 실천성에 있음을 천명했다. 또한 당시 한국 사회가 아직 반봉건적 상태에 있으므로 한국 사회에 모든 봉건적 요소를 청산하는 부르주아 혁명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그 혁명의 주체로 조선 청년을 직접적으로 호명하기도 했다.³⁷⁾

『조선사교정』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특히 강조한 것은 봉건 사회 타파라는 현실적 과제에 가장 큰 시사점을 주는 동학농민운동이었다. 전석담은 다른 피지배층 저항 사건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서술한 반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는 ‘동학농민란’이라는 독립적인 장을 설정하여 총 4절에 걸쳐 상세히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은 ‘동학농민란’, ‘갑오농민란’이라는 용어로 서술되어 농민전쟁적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운동에서의 동학의 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³⁸⁾

35) 이병도(1948), 위의 책, p. 426.

36) 이병도(1948), 위의 책, p. 465.

37) 전석담(1948), 『조선사교정』, 을유문화사, pp. 1-12.

이병도, 전석담의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이 일제시기의 서술을 대체로 계승하는 경향을 보였다면 손진태의 『국사대요』의 서술은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국사대요』는 신라시대 농민 반란, 고려시대 농민·노비 반란, 홍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농민운동 등 다양한 피지배층 저항 사건들을 서술하였으며, 이러한 피지배층 저항이 ‘민중’을 흑독하게 착취하고 인권을 짓밟은 “귀족정치에 대한 국민의 반항운동”이었다고 규정하여 외연적으로는 피지배층 저항을 자유주의적 사회운동으로 보는 관점을 취했다. 여기에 민족 중심의 역사학을 천명한 신민족주의 사관에 따라³⁹⁾ 피지배층 저항에 민족의 분열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이의 단초를 제시한 귀족전제정치에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이 특이점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손진태의 역사 서술이 강렬한 민족 중심적 역사상을 제시했음에도 일반적으로 민족주의 사학자로 파악되는 신채호, 박은식 등의 저술들보다는 백남운의 유물사관적 저술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손진태는 그의 저작 『조선민족사 개론』의 서설(序說)에서 전근대적인 왕조사관, 귀족중심사관 타파를 한국사의 과제로 내세우며 “내가 아는 한에 있어 용감하게 이 구각(舊殼)을 깨뜨린 선구자는 오직 백남운씨 한 사람이었다.”고 평했고 백남운의 저작인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에 대하여 경의를 갖는다.”고 서술하였다.⁴⁰⁾ 손진태에게 백남운의 서술이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었던

38) 전석담(1948), pp. 71-86.

39) 손진태는 『국사대요』 뿐 아니라 『조선민족사 개론(상)』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사관이 신민족주의 사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신민족주의 사관은 “우리 민족의 과거에 민족으로서 어떻게 생활하였느냐 하는 사실을 민족적 입지에서 엄정하게 비판하여 앞으로 우리 민족의 나아갈 진정한 노선을 발견하는” 데 의의를 둔 사관이라고 정의된다. 신민족주의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선민족사 개론(상)』 자서(自序)와 서설(序說)의 서술이 자세하다(손진태(1948), 『조선민족사 개론(상)』, 을유문화사, pp. 1-2, 1-9).

것은 백남운의 서술이 왕실중심적이고, 귀족중심적인 전근대적 왕조사관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체제와 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기존 역사 서술이 왕조중심적 이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무수한 왕실관계의 기사(記事)만을 채택하여 민족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지 않았다는 서술로 미루어보아⁴¹⁾ 그는 백남운의 서술이 왕조 중심이 아닌 사회구성을 중심으로 역사를 파악했다는 점과 왕실이나 귀족의 생활과 함께 피지배층인 ‘민중’의 생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백남운의 저술이 “피지배계급을 발견하기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민족의 발견’에 극히 소홀하였음”을 비판하며 이에 ‘민족’의 지위에서 한국사를 개론하였음을 밝혔다.⁴²⁾ 이처럼 손진태는 백남운의 비판적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신민족주의 사관을 주장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구성체론이나 계급투쟁론과 같은 유물사관적 이론들을 변용하여 역사 서술에 적용하는 면모를 보였다. 한국사를 민족 국가의 발전 과정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하며 ‘씨족공동사회-부족사회, 부족국가, 부족연맹왕국-귀족국가’라는 독자적 시대구분을 제기한 것이나,⁴³⁾ 무제한적인 사유재산의 기초 위에 전개된 귀족정치가 필연적으로 계급알력의 불행을 낳았다고 본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물사관의 영향력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에도 반영되어 다양한 피지배층 반란들은 모두 ‘귀족국가’ 단계에서 나타난 ‘계급반목’이라는 일괄적 틀로써 파악되었으

40) 손진태(1948), p. 2.

41) 손진태(1948), pp. 1-2; 손진태는 1933년 연희전문학교 강사로 근무할 무렵, 이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백남운과 교류하였다고 한다. 특히 이 무렵 백남운이 『조선사회경제사』와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를 출간하였으므로 손진태는 개인적으로도 백남운의 사관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이진한(2011), 「손진태의 삶과 신민족주의 사학의 전개」, 『한국인물사연구』 16, p. 306).

42) 손진태(1948), pp. 3-4.

43) 손진태(1948), pp. 5-10.

며, ‘왕실 타도 운동’⁴⁴⁾이나 ‘민중의 반란’⁴⁵⁾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서술되었다. 사회경제사학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에 보이는 일원화 경향이 손진태의 서술에도 나타난 것이다.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조하는 사회경제사학의 서술처럼 ‘귀족의 호화한 생활과 민중의 빈궁’(제2편 2장), ‘귀족의 약탈과 민중의 고통’(제4편 5장), ‘귀족정치의 문란과 민중의 빈곤’(제5편 5장)과 같은 장들을 따로 설정하여 각 시대마다 나타난 귀족정치의 폐해를 상세히 서술한 것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국사대요』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은 많은 부분에서 사회경제사학의 영향을 받은 면모를 보였으나 피지배층의 저항을 역사 발전의 계기가 아닌 민족분열이라는 부정적 현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사학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는 사회경제사학의 지향점이 피지배계급 중심의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있었던 반면 신민족주의사학의 지향점은 궁극적으로 민족국가의 단합과 발전에 있었기 때문이다.⁴⁶⁾ 이러한 면에서 신민족주의 사관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에 나타난 사회경제사학의 영향력은 사회경제사학이 피지배층과 이들의 저항에 부여한 발전적 의미는 삭제한 채 단지 사회경제사학의 법칙성과 일원화 경향만을 수용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손진태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성격을 띠면서도 기존의 자유주의적 서술들이 일정 부분 드러내던 각 저항 사건들의 차이와 개성들마저 탈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

44) 『국사대요』에서 신라 후기 농민반란과 관련해 사용된 용어이다(손진태(1953),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pp. 84-85).

45) 『국사대요』에서 고려시기 농민반란, 조선 후기 민란 및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해 사용된 용어이다(손진태(1953), pp. 171-174, 225-227).

46) “민족이 발전하려면 먼저 민족이 뭉쳐야 되고, 민족이 뭉칠려면 민족이 정치·경제·교육 여러 부문에 고른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의 민족정치는 이리하여야 할 것이요 싸우면 찢어지고 찢어지면 민족은 망하는 것이다.”(손진태(1953), p. 174)

다. 피지배층이 주체가 될 수 없는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하에 사회경제사학의 방법론이 변용, 적용되며 나타난 결과였다.

4.2. 탈식민 과제 해결을 위한 신민족주의적 서술과 ‘내재적 발전론’의 결합

분단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발발은 해방공간기 분출한 다양한 역사관들이 억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경제사학자들과 신민족주의사학자들의 월북 및 남북은 실증주의적 학풍이 남한의 역사학계를 주도하는 결과를 낳았다. 통사의 경우에도 이병도의 『조선사대관』을 개정 출판한 『국사대관』이 저간에 널리 읽히며 실증주의 사관에 기반한 한국사의 대중화를 이끌었다.⁴⁷⁾

그러나 짧은 기간이나마 활발히 편찬된 신민족주의사학과 사회경제사학 계열 연구들의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은 당대 신진 연구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방 직후인 1946년, 경성대학 조선사연구실이 집필한 통사 『조선사개설』⁴⁸⁾ 당시 신진 연구자들의 한국사 인식을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이인영, 손진태의 지도하에 대학원생이었던 한우근, 손보기, 임진상 등이 참여하여 편찬한 『조선사개설』은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사회구조를 강조하고, 이에 의거해 한국사의 사회구조 발전 과정을 부족국가시대(고조선~삼국시대)-봉건귀족국가시대(신라, 고려, 조선)로 파악하는 등 사회경제사학과 손진태 사학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면모를 보여준다.⁴⁹⁾ 이어 1954년 한우근, 김철준이 출간한 통

47) 김언호(1988), 「우리시대 베스트셀러의 사회사 (7) — 이기백의 “한국사신론”」, 『출판저널』 19, 대한출판문화협회, p. 14.

48) 1946년에 집필, 편찬되었으나 정식 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은 1949년으로 알려져 있다.

49) 경성대학 조선사연구실 편(1949), 『조선사개설』, 흥문서관, pp. 1-6.

사 『국사개론』에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문제의식의 측면에서는 민족국가의 구조 해명을 강조하여 신민족주의 사학을 계승하고,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원시사회-부족연맹(고조선~삼국)-고대국가(삼국~고려)-집권적봉건국가(고려~조선)라는 시대구분을 시도한 것 등이 그것이다.⁵⁰⁾

실제로 당시 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이기백, 김용섭, 강만길 등의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사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진학자들은 실증주의적 연구 뿐 아니라 신민족주의사학 계열의 연구와 사회경제사학 계열의 연구들까지 폭넓게 학습했던 것으로 보이며,⁵¹⁾ 그 과정에서 양자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신진학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주류 실증주의 사학의 현재적 문제의식 부재에 대한 비판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이제까지 한국 사회에서 체계적인 청산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식민사학 극복의 문제였다. 이러한 움직임이 학계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4·19 혁명과 한일회담의 영향으로 민족주의적 열기가 고조되며 식민사학 극복의 과제가 전면에 부상한 1960년대였으며, 이는 곧 통사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1년 출간된 이기백의 『국사신문』은 식민사학 극복의 필요성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천명한 통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식민사학 극복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당대 학계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게 해준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이기백의 문제의식 및 이에 근거해 쓰여진 『국사신문』의 서술이 신민족주의 사학의 논의와 체제를 상당 부분 계승했다는 점이

50) 한우근, 김철준(1954), 『국사개론』, 명학사, pp. 1-12.

51) 김용섭, 이기백, 강만길 등은 모두 대학원 재학 시절, 신민족주의 사학자들과 사회경제사학자들의 저작을 두루 읽었음을 밝히고 있다(김용섭(2011), 『김용섭 회고록 :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 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 지식산업사 pp. 117-122); 이기백(1994), 『연사수록』, 일조각, pp. 237-241; 강만길(2010), 『강만길 자서전: 역사가의 시간』, 창비, pp. 177-178).

다. 식민사학의 논리를 반도성론, 사대주의론, 당파성론, 타율성론, 정체성론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유명한 『국사신론』의 서문은 상당 부분 이인영의 연구들을 참고하여 서술되었으며,⁵²⁾ 전근대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씨족사회-부족연맹-귀족국가’로 파악한 점은 손진태의 시대구분론을 참고한 것이었다.⁵³⁾ 실제로 이기백은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관을 “실증주의사학의 토대 위에서 사회경제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흡수하여 빚어진 이론”이라 평하며 현대 한국사학이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관으로 높이 평가하였고,⁵⁴⁾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한 손진태의 시대구분에 공감하는 사론을 남기기도 했다.⁵⁵⁾

이에 따라 『국사신론』의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 또한 이를 귀족정치에서 비롯된 민족 내 계급대립으로 파악한 『국사대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손진태가 독립된 장을 설정해 귀족정치의 피지배층 착취를 상세히 비판했던 것처럼 이기백 또한 각 시대마다 ‘민중생활’이라는 절을 따로 설정해 특권적인 귀족국가 체제 하의 고달픈 피지배층의 생활을 상세히 서술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피지배층 저항의 발생을 이해하였다. 다만 이기백은 ‘난’, ‘반란’, ‘민란’, ‘봉기’, ‘동학난’ 등 당대 용어를 사용하여 피지배층 저항 사건들을 서술하였고, 손진태의 서술에 나타난 일원화 경향을 “지나친 가치판단으로 인한 도덕적인 반복사관의

52) 이기백(1961), 『국사신론』, 제일출판사, pp. 1-10.

53) 이는 이기백의 공식적인 시대구분(편 제목)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씨족사회(신석기시대)’, ‘부족연맹(고구려)’, ‘귀족사회의 혼란(통일신라)’, ‘귀족정치와 그 문화(고려)’, ‘귀족사회의 동요(고려)’, ‘귀족사회의 분열(조선)’과 같은 절 제목에 나타나 있으며, 1967년 『한국사신론』의 단계에 가서 시대구분으로 공식화한다(이기백(1961), 『국사신론』, 제일출판사, pp. 3-7).

54) 이러한 이기백의 평은 실제 신민족주의 사관의 성격이 그의 평과 부합하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가 손진태 사학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며, 이기백 자신의 역사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이기백(1972), 「신민족주의사관론」, 이우성, 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하)』, 창작과비평사, pp. 534-535).

55) 이기백(1970), 「한국사의 시대구분 문제」, 『민족과 역사』, 일조각 pp. 46-62.

위험성”⁵⁶⁾으로 보고 경계하여 다양한 피지배층 저항의 특징들을 실증적 연구 성과에 기반해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손진태 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사신문』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은 식민 사관 극복이라는 시대적,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적 서술을 적극 차용한 결과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사신문』의 서술 또한 사회구성체론과 같은 사회주의적 요소를 변용하여 도입하면서도 사회경제사학이 피지배층 저항에 부여한 발전적 의미는 삭제한 채 이를 단지 민족 국가 내의 계급대립으로 부정적으로 본 손진태의 서술과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1967년 『국사신문』을 수정, 증보하여 편찬한 『한국사신문』에서 이기백의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인다. 특히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잘 나타난 부분은 조선 후기 피지배층 저항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었다. 『국사신문』에서 세도정치 및 사회적 혼란과 관련해 ‘민란의 빈발’이라는 절에서 다루어졌던 조선후기 농민반란은 『한국사신문』에서는 ‘양반 신분체제의 변화와 농민의 반란’이라는 장 제목에서 언급되며 그 비중이 커졌다. 또한 이를 단순히 귀족정치체제 하 사회혼란상 중 하나로 서술한 『국사신문』과는 달리 농민반란 관련 서술의 전후로 조선후기의 자본주의적 경제발달과 신분제 해체가 서술되며 농민반란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발전상의 한 부분으로 파악되었다.⁵⁷⁾ 이와 더불어 ‘동학난’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주로 열강의 침략과 관련해 서술된 동학농민운동은 『한국사신문』에서는 ‘농민전쟁과 근대적 개혁’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갑오개혁과 함께 서술됨으로써 농민전쟁적 성격과 근대적 성격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서술이 변화했다.⁵⁸⁾ 즉, 피지

56) 이기백(1972), p. 535.

57) 이기백(1967), pp. 280-285.

58) 이기백(1967), pp. 314-320.

배층 저항의 발전적 의미를 인정하지 않았던 『국사신문』의 서술과는 달리 『한국사신문』의 서술은 조선후기 피지배층 저항에 근대적이고 발전적 성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사신문』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에 이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 배경에는 1960년대 나타난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적 연구 경향의 확산이 있었다. 이는 식민사관 중에서도 특히 정체성론을 비판하기 위해 출현한 연구 경향으로 한국의 전근대를 낙후된 사회로 보고 주체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학계의 지배적 관점에 반론을 제기하며 한국사 내에서 주체적 발전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조선 후기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들 연구들에서 ‘내재적 발전’의 주체로 주목한 것이 바로 피지배층인 당대의 농민이었다. 신분제의 해체, 경영형 부농의 출현, 평민문화의 발달 등 농민사회의 자본주의적, 근대적 변화가 연구되는 가운데 조선 후기 피지배층의 저항 또한 이들의 근대적 의식 성장을 보여주는 근대적 지표로 해석되었다.⁵⁹⁾ 『한국사신문』의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변화는 역시 식민사관의 극복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던 이기백이 이러한 ‘내재적 발전론’적 경향의 연구를 통사 서술에 적극 반영한 결과였다.

‘내재적 발전론’적 경향의 연구들이 피지배층 저항 서술에 적극 반영되며 신민족주의 사관의 영향 하에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피지배층 저항은 다시금 ‘근대화’라는 발전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피지배층 역시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을 이끌어 간 역사 주체로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사회경제사학이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피지배층에 역사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내재적 발전론’은 한국사 내에 나타난 근대화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 후기 농민층에 근대화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내재적 발전론’의 피지배층

59) 김용섭(1956), 「철종조 민란 발생에 대한 시고」, 『역사교육』 1; 김용섭(1958), 「동학란연구론 — 성격문제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3.

저항 서술은 분단 후, 유물사관적 이해가 금기시된 한국사학계 내에서 피지배층과 이들의 저항에 대해 이루어진 최초의 발전적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4.3. 분단 극복 과제의 대두와 ‘민중’, ‘민중운동’ 개념의 통사 도입

피지배층을 근대화의 주체로 상정한 ‘내재적 발전론’적 연구의 확대와 심화는 한국사학계 내에서 피지배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전태일 분신사건, 광주대단지 사건과 같은 1970년대 노동자, 빈민운동의 전개는 사회적으로 광범한 ‘민중’의 존재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는 한편 한국사학계의 피지배층 및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1970년대 한국사학계에서는 한국의 근현대 역사 주체를 피지배층인 ‘민중’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들의 저항 전반을 ‘민중운동’으로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⁶⁰⁾

1975년 발표된 정창렬의 사론 「한국민중운동사」는 이러한 한국사학계의 동향을 잘 보여주는 글로 “지배자의 권위에 복속되어 일방적인 충성의 의무를 강요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함께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의도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을 ‘민중’으로, 이러한 ‘민중’이 일으킨 사회변혁운동을 ‘민중운동’으로 규정했다.⁶¹⁾ 정창렬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흥경래의 난, 임술민란, 동학농민운동, 의병전쟁, 3·1운동,

60) 본래 한국사학계에는 역사상 존재했던 광범한 피지배층 일반을 ‘민중’이라는 용어를 통해 지칭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앞서 살펴본 신재호의 「조선혁명선언」이나 황의돈의 『신원 조선역사』, 문일평의 「조선과거의 혁명운동」, 손진태의 『국사대요』, 이기백의 『국사신론』과 『한국사신론』에도 모두 피지배층을 지칭하는 ‘민중’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1970년대에는 ‘내재적 발전론’적 경향의 심화 속에서 전통적인 ‘민중’개념에 근현대라는 시간적 관념과 주체성의 의미를 결합한 보다 명확한 ‘민중’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61) 정창렬(1975), 「한국민중운동사」, 『정창렬 저작집Ⅱ — 민중의 성장과 실학』(정창렬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선인, pp. 93-94.

일제시기 노동자·농민운동을 ‘민중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범주화했다.

1976년 출간된 이기백의 개정판 『한국사신문』 ‘종장’ 제2절 ‘한국사상의 집권자와 민중’에도 이와 비슷한 인식이 나타나있다. 역시 사론적 성격의 이 글에서 이기백은 ‘민중’은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자로서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층 세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 또한 ‘민중’이 19세기 말엽부터 직접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았으며, 동학농민운동, 독립협회 운동, 3·1운동, 일제시기 민족운동, 4·19 혁명을 민중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민주주의를 주장한 대표적인 ‘민중운동’으로 규정했다.⁶²⁾

그런데 위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사람이 ‘민중’과 ‘민중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계층과 사건이 서로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시기 한국사학계 내에서 ‘민중’과 ‘민중운동’ 개념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역사상에서 어떤 주체와 사건을 ‘민중’과 ‘민중운동’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역사가 개인의 역사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현대 역사 주체로서의 ‘민중’과 이러한 주체성의 발현으로서의 ‘민중운동’에 대한 학계 내 광범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개념을 활용한 통사 저술은 1970년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기백이 ‘민중’을 근현대의 지배세력으로 파악했으면서도 각 시대별 지배세력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파악한 1976년판 『한국사신문』의 시대구분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작용했다.⁶³⁾ 결국 1970년대 등장한 ‘민중’, ‘민중운동’ 개념을 적용한 통사 저술은 그로부터 10여 년이나 지난 1986년 『한국민중사』의 출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나마 『한국민중사』의 출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 학술적 조건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62) 이기백(1976), 『한국사신문』, 일조각, pp. 455-456.

63) 이기백(1976), pp. 5-13 참고.

첫째는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제시와 이로 인해 촉발된 역사학의 현재성, 실천성에 대한 강조였다. 현대 역사학의 과제로 분단 극복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역사가는 ‘내재적 발전론’적 관점에서 조선 후기 경제사를 연구하던 강만길이었다. 그는 1974년 계간지 『창작과비평』에서 1945년 이후의 역사학을 ‘분단시대의 사학’으로 규정한 이래 해방 후 역사학의 현재성 부재를 비판하며 “현대 국사학이 해방 후 민족사회가 가진 한층 높은 현재적 요구인 분단시대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⁶⁴⁾ 그의 문제 제기는 식민 사학 극복 문제 이후, 이렇다 할 학문적 과제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학계에서 역사학의 현재성과 실천성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장을 열었다.

두 번째는 1980년대 ‘서울의 봄’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며 나타난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재출현이었다. 분단 이후 한국의 공론장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서울의 봄’의 좌절에서 민중항쟁 발발로 이어지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주류 인문사회과학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지식인 및 학생사회에 확산되었다. 그 결과 지식인운동과 노동운동의 결합이 본격화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사회구성체론을 도입하여 현 사회의 발전단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운동노선을 확립하려는 노력 또한 이루어졌다. 1985년에 시작되어 치열하게 전개된 ‘한국 사회성격논쟁’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⁶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간된 통사인 『한국민중사』는 분단 극복을 역사학의 과제로 내세우고 그 방법으로서 피지배층인 ‘민중’ 중심의 역사를 천명하며 1970년대 등장한 ‘민중’, ‘민중운동’ 개념을 통사 서술에 본격

64) 강만길(1976), 「국사학의 현재성 부재문제」, 1978,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비평, pp. 39-41.

65) 배성준(2010),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형성과 소멸」, 『역사문제연구』 23, pp. 36-37.

적으로 적용하였다.⁶⁶⁾ 그런데 이러한 ‘민중’ 중심의 역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한국민중사』의 저자들은 그간 금기시 되어 온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을 역사 서술에 직접적으로 도입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구성체론에 입각해 한국사의 사회 발전 단계를 원시사회-고대사회(부족연맹사회~삼국)-중세사회(남북국~조선)-근대(19세기 말~일제시기)-현대(분단 이후)로 구분한 시대 구분이다. 『한국민중사』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당대 진행되던 ‘한국 사회성격논쟁’ 또한 시대구분에 반영하여 일제시기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⁶⁷⁾ 현대사회를 신식민지 예속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파악하였다.⁶⁸⁾ 한편 『한국민중사』가 근현대 반봉건 근대화(의 주체 및 계기로 규정된 종래의 ‘민중’, ‘민중운동’ 개념을 한국사 전체의 역사 주체 및 역사 발전의 계기로 각각 확장시켜 개념화한 것은⁶⁹⁾ 피지배층을 역사 발전의 주체로, 이들의 저항을 역사 발전의 계기로 본 계급투쟁론의 영향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한국사 전반을 피지배층인 ‘민중’ 중심으로 서술하기 위해 계급투쟁론을 변용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민중사』의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관련 서술은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사학의 서술과 매우 흡사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신라 말기 농민 반란, 고려시기 농민·천민 반란, 조선후기 민란, 동학농민운동 등 각 시대별 피지배층 저항 사건들이 “농민·천민의 투쟁(고려시

66) 한국민중사연구회편(1986), 『한국민중사 1』, 풀빛, pp. 14-36.

67) 한국민중사연구회편(1986), pp. 121-122.

68) 한국민중사연구회편(1986), pp. 221-222.

69) 이러한 규정은 ‘민중’은 “상이한 국가 또는 상이한 역사시기마다 서로 다른 내용과 구성을 가지는 것”이라는 서술이나, (한국민중사연구회편(1986), p. 32), 신식민지 예속독점자본주의 사회인 “현재 한국 사회에서 민중이란 신식민지 하에서 민족해방의 주체로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하여 농민, 도시빈민, 진보적 지식인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와 같은 서술에 잘 드러난다(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6), pp. 32-33).

대 농민반란”, “민중운동(조선후기 농민반란)”,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운동)”과 같은 실천성 강한 용어들을 사용해 상세히 서술되고, 이들의 발전적 측면이 강조되었다. 다만 서론에서 비판한 바 있는 사회경제사학의 기계적 공식사관을 지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피지배층 저항 과정에서 ‘민중’의 주체성이 강조되고⁷⁰⁾ 각 시대별 피지배층 저항의 질적 차이가 지적되었다.⁷¹⁾ 이러한 면에서 『한국민중사』의 서술은 사회경제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하면서 그 한계를 해방 후 민족주의 경향 역사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는 ‘내재적 발전론’ 및 ‘민중’ 개념의 도입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반제 민족사학인 사회경제사학과 민족주의사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겠다는 『한국민중사』의 지향⁷²⁾은 사회경제사학적 관점을 기반으로 민족주의적 요소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민중사』에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은 역사발전의 계기이자 역사 주체인 ‘민중’의 주체성이 발현된 ‘민중운동’으로서 한국 사학사상 최대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한국민중사』에서 피지배층 저항이 빈발한 19세기 말을 이른바 “근대를 향한 민중적 세계의 발전”기로서 근대 구분의 획기로 삼은 것은 이러한 의미 부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민중사』 서술에 나타난 최대의 의미 부여는 실제 피지배층 저항 역사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분단 극복을 위한 사회변혁을 지향하는 『한국민중사』 저자들의 역사상에 따라

70) 이는 주로 피지배층 저항의 계기를 그들의 의식 성장에서 찾는 식의 서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한국민중사』는 김용섭에 의해 이미 해당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조선 후기 민란은 물론이고 고려 시기 농민·노비반란 까지도 농민과 천민의 사회의식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6), pp. 187-195).

71)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의 질적 차이는 저항주체인 피지배층의 의식, 저항의 조직과 방식, 저항의 목적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로 점차 발전하여 동학농민운동에서 정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72) 한국민중사연구회편(1986), p. 31.

재현된 것에 가까웠다. 『한국민중사』의 역사상에서 ‘주체성’이나 ‘발전’과 같은 근대적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피지배층 저항의 다양한 양상들은 의도적으로 탈락되었고, 피지배층은 주체성을 지닌 채 늘 역사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당위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그 결과, 최대의 의미 부여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개념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는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의 복합적 실상과 큰 괴리를 보이게 된 것이 『한국민중사』 서술이 갖는 딜레마였다.

5. 맺음말

이 글은 통사가 갖는 근대 프로젝트적, 계몽적 성격에 주목하여 근현대 주요 한국 통사에 나타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 서술이 근대 국가 수립과 관련해 각 시대별로 제시된 시대적 과제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한국사 통사에 나타난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주요 변화 기점을 다음과 같이 거칠게나마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조론’적 사조와 3·1운동 등의 영향 등으로 피지배층 저항을 서구적 자유주의적 혁명 및 유물사관에 따른 계급투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출현한 일제시기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서술 경향과 사회주의적 서술 경향은 역사가가 이상적으로 상정하는 근대 사회상에 기반해 피지배층 저항을 재현한 것이었으며, 이는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최초의 근대적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두 번째는 출현 이후, 피지배층 저항 서술의 지배적 경향으로 자리 잡은 두 개의 서술 경향이 민족이라는 거대담론 하에서 습합하는 해방공간기이다. 특히 손진태의 신민족주의 사학에서 뚜렷이 나타난 이러한 경향은 분단 이후, 실증적 학풍만이 잔류한 한국 사학계가 1960년대 민족주

의적 열기 속에서 제기된 식민사학 극복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민족주의적 서술에 주체적 발전적 의미를 가미한 ‘내재적 발전론’적 서술의 출현은 유물사관적 역사 이해가 급기시된 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사학계가 도달한 피지배층 저항에 대한 발전적 의미 부여의 양상을 보여준다.

세 번째는 분단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와 방법으로 ‘민중’과 ‘민중운동’을 개념화하고 통사 서술에 반영한 1986년이다. 분단 극복을 위한 ‘민중’ 중심의 역사를 표방한 『한국민중사』에서 분단 이후, 한국사학계에서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유물사관은 ‘민중’ 중심 역사 서술을 위해 재등장했다. 피지배층 저항을 역사 발전의 계기로 보는 유물사관적 이해에 ‘내재적 발전론’적 이해가 결합되며 『한국민중사』의 피지배층 저항은 근대의 획기로까지 의미가 격상되며 근현대 사학사상 최대의 의미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역사 서술의 변화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근대적 의미를 부여받고, 발전적 법칙 속에 위치 지어지는 가운데 잊혀지고 삭제된 전근대 피지배층 저항의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양상들이다. 근현대 한국 통사의 근대 프로젝트 속에서 ‘민족’이나 ‘발전’, ‘근대화’ 등의 근대적 가치에 포섭되지 못한 피지배층의 일상들은 재현되지 못한 채 침묵해야 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자 료】

- 강만길(2010), 『강만길 자서전 : 역사가의 시간』, 창비.
_____(1987),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
경성대학 조선사연구실 편(1949), 『조선사개설』, 홍문서관.
김용섭(2011), 『김용섭 회고록 : 역사의 오솔길을 가면서 — 해방세대 학자의 역사연구 역사강의 —』, 지식산업사.
문일평(1923), 「조선과거의 혁명운동」, 1995, 『호암문일평 전집 — 新聞 補遺 篇』, 민속원.
백남운(1937), 하일식 역, 『조선봉건사회경제사(상)』, 이론과실천.
_____(1933), 하일식 역, 『조선사회경제사』, 이론과실천.
손진태(1949), 『국사대요』, 을유문화사.
_____(1948), 『조선민족사 개론(상)』, 을유문화사.
안확(1923), 『조선문명사』, 회동서관.
이기백(1994), 『연사수록』, 일조각.
_____(1978), 『민족과 역사』, 일조각.
_____(1967, 1976), 『한국사신론』, 일조각.
_____(1961), 『국사신론』, 태성사.
이병도(1948), 『조선사대관』, 동지사.
이우성, 강만길 편(1976), 『한국의 역사인식(하)』, 창작과 비평.
이청원(1937), 『朝鮮歷史讀本』, 白揚社.
전석담(1948), 『조선사교정』, 을유문화사.
정창렬(1975), 「한국민중운동사」, 정창렬 저작집 간행위원회 편, 2014, 『정창렬 저작집Ⅱ — 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한국민중사연구회 편(1986), 『한국민중사』 1, 2, 풀빛.
한우근·김철준(1954), 『국사개론』, 명지사.
현채(1899), 임이랑 역, 『근대역사교과서 2 — 중등교과 동국사략』, 소명출판.
황의돈(1923), 『신편조선역사』, 이문당.
_____(1922), 「民衆的 叫號의 第1聲인 甲午의 革新運動」, 2007, 『海圓文稿

下卷』, 문원사.

【논 저】

- 도면희(2009), 「국사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역사학의 세기 :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도면희, 윤해동), 휴머니스트.
- 류시현(2010), 「1920~30년대 문일평의 민족사와 문화사의 서술」, 『민족문화연구』 52.
- 박종린(2014), 「조선사의 서술과 역사적 대중화 —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 박찬승(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 박형진(2012),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 논쟁과 과학적 조선학 연구 — 이 청원의 식민지기 학술활동과 논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성준(2010), 「1980-90년대 민중사학의 형성과 소멸」, 『역사문제연구』 vol. 23.
- 역사문제연구소 민중사반(2014), 『민중사를 다시 말한다』, 역사비평사.
- 이신철(2013), 「동국사략의 당대사 역술과 서술을 통해 본 한국 근대 역사학의 국민만들기」, 『동아시아 근대 역사학과 한국의 역사인식』(이신철 편), 선인.
- 허수(2009),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 50.

원고 접수일: 2018년 1월 11일
심사 완료일: 2018년 2월 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2월 1일

ABSTRACT

Changes of Descriptions about Resistance of the
People Against the Ruling Classes
in the Premodern Period in Modern and
Contemporary Korean Linear History Books

Choi, Hyerin*

This article reviewed the descriptions concerning resistance by the oppressed people in the premodern period that appeared in important Korean linear history books published from the 1890s to the 1980s. To achieve this goal, this article reviewed *Dongguksaryak* (1906) by Hyun Che, *Sinpyeon Joseonyeoksa* (1923) by Hwang Uidon, *Joseon saheo kyeongjesa* (1933) by Beak Namwoon, *Joseon bonggun saheo kyeongjesa* (1937) by Beak Namwoon, *Joseon yeoksa dokbon* (1937) by Lee Chungwon, *Joseonsa daekwan* (1948) by Lee Byngdo, *Joseonsa kyojeong* (1948) by Jeon Sukdam, *Kuksa deayo* (1949) by Sohn Jintae, *Kuksa sinron* (1961) by Lee Kibaik, *Hankuksa sinron* (A New History of Korea, 1967, 1976) by Lee Kibaik, and *Hankuk minjungsa* (1986) by the Research Group for History of the Minjung.

The colonial period is the most important in this article because the re-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sistance by the oppressed people in the premodern period was highly rated in Korean linear history for the first time. In this period, liberalistic descriptions appeared in linear history books written by the school of Nationalist and Culturalist history, and socialistic descriptions appeared in linear history books written by the school of materialist history. These two styles of descriptions continued and fused after liberation and established themselves as two important explanations about resistance by the oppressed people in the premodern period. After the Korean War, as materialist history disappeared in South Korea, such socialistic descriptions also officially disappeared. But socialistic descriptions had some influence in South Korean history as South Korean historians tried to overcome limitations by borrowing some factors of materialist history in the course of the decolonization movement. Advanced socialistic descriptions about the resistance by the oppressed people reappeared in South Korean linear history books in the 1980s, with emphasis on the effort to overcome national division and the inflow of Maxism into the South Korean public sphere.